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가 물질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바람에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는 예수교에서 나왔다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신학공부를 하였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목사인데 신학교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동생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에 '주여! 내 누이동생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지 않았나이까' 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누이동생이 죽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자기 누이동생이 죽으니까 칼 마르크스는 '신이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유물론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는 예수를 철저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논리인 평등의 논리,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논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칼 마르크스가 논한 공산주의 책들, 볼세비키 당사 책이라든지 그러한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성경구절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나이 스무 살 때에 이북에 끌려가서 평양 서포 뒤동산에서 인민군에게 총살 당한 후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때 반공운동하는 목사의 딸 이양숙을 만나 토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굴에 공산주의 책(볼쉐비키당사 같은 책)이 있는 고로 거기서 읽어봤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예수를 믿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예수의 신이 과연 하나님의 신이냐 마귀의 신이냐 하는 것을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삼사십 년 전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예수가 마귀의 신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았던 것입니다.

반대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를 이겨야, 나를 죽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나라는 것을 짓이기고, 나라는 것을 죽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먹을 때 그 사람이 그 먹고 싶은 걸 줄 때에 그게 먹고 싶으면 안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배가 불러서 지금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이 항상 움직이는 고로 반대로 희생적인 생활, 주는 생활, 밑지는 생활, 양보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졸리면 잠을 안 자고, 안 졸릴 때 잠을 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결단력과 보통 집요함 없이는 반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대생활을 했느냐 하면 "나를 항상 버리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다른 말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려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면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내 하나님처럼 진심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반대생활이 나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예수나 석가가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반대생활을 하다보니까

구세주 조희성님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경지에서 참아야 했고, 견딜 수 없는 경지에서 견뎠던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내력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울며불며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반대생활을 지속해서 했기 때문에 마귀가 죽고 말았던 거예요. 나라는 게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적인 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죠? 사랑이라는 건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녀지간에 연애 거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예수교인들은 열심히 연애질하고 열심히 시집장가 가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죄에 해당돼요. 성경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랬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죄를 못 이겼으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고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남자만 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세계입니다. 정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의식 못하는 존재, 여자가 남자를 의식 못하는 존재가 되는 고로 시집가고 장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아주 결혼식을 거룩하게 행하는데 암만 거룩하게 해도 개똥 의식이죠? 똥냄새 나는 의식이죠? 죄 짓는 의식이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의식이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죄를 짓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자기 가족이다

그런고로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쓰여 있습니다. 자유율법은 죄를 짓지 않는 법을 말하며, 마귀를 이기는 법, 은혜를 간직하는 법, 나를 이기는 법입니다. 나를 이기면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나를 이기려면 내 가족이고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의식하는 자체가 나를 못이긴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세상 사람마냥 내 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누구를 봐도 내 주님처럼 여겼고, 내 하나님처럼 여겼고, 내 상전으로 섬기면서 살았지 내 종처럼 여기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종의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겸손 떠느라고 그랬을까요? 나를 죽이고,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간 이 말씀을 듣고 형제를 섬길 줄 모르는 생활을 아직도 한다면 구원의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인사도 안 할까?' 라고 생각하며 삐기고 다니는 것 이제 버려요. 암만 나이가 어리고, 암만 옷을 허름하게 입었어도 땅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신을 쳐서 짓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신을 위로 올려놓고 자신의 영광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나라는 것을 짓이기고, 항상 짓이길 뿐만 아니라 항상 나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됐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진리예요.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마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저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저 형제의 죄가 내 죄로 여길 줄 아는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될 때에, 저절로 그와 같이 마음이 움직일 때, 그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고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 사람 마음이 돼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천당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한 고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1989년 10월 10일 말씀 중에서

본부제단 6월 성적, 해외파 덕분 3지역 1등

3지역 회장 정은경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6월 성적에서 3지역이 1등을 차지했다. 해외파의 지원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2등은 5지역, 3등은 4지역이다.

윤봉수 회장은 "헌금으로 제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헌금점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현 세상에서 돈은 생명이다. 헌금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상금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오늘의 성적들이 쌓여서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라며 시상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본부제단은 3지역, 4지역, 5지역 3강체제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지역이 돌아가면서 1등을 차지하는 형세이다. 이 길은 자신과의 싸움이므로 자기 지역의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등수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자.*

죽는다는 사실, 인류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죽음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비밀스런 죽음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죄일까?" 셰익스피어가 죽음에 대하여 말한 명언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는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죽음이라는 하나의 엄연한 생물학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양한 것처럼, 죽음이나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의미부여도 크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류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중대 사안을 놓고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죽음이란 결과는 똑같이 인정하면서도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죽음에 이르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 인간의 죽음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은 왜 그토록 절실하게 다뤄져 왔겠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주어진 현실 앞에서는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감추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죽음에 대한 견해와 인식은 개개인의 인생관과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따라 제각기 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죽음관의 양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시간 내에서 죽음의 의미를 찾는 것과 시간을 초월하여 죽음의 의미를 찾는 두 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분에 상관없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좀더 폭넓게 세분화하여 알아보겠다.

첫 번째, 가장 과학적인 사실이다. 죽음을 끝으로 육체가 없어져서 원소로 돌아가고 인격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국가에서 지배적인 생각이다. 신은 없다는 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두 번째, 인간을 유구한 삶의 유전과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개인은 죽지만, 그 개인은 유구히 지속되는 인류라는 종(種)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개인은 자신의 죽음을 인류에 공헌하는 지속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죽음과 삶을 하나로 보는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이 있다. 이 생사일여관은 삶과 죽음은 결국, 낮과 밤의 교차와 같이 우주적인 자연적 변화 과정의 하나의 범주에 따르는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는 도교(道敎)가 대표적으로 속한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무덤

네 번째, 죽음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신적인 자연의 이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리스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 번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을 예찬하거나 동경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죽음을 하나의 자선(慈善)으로 보는 것은, 죽음이 삶의 곤궁함과 격랑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섯 번째, 죽음을 올바로 직시함으로써만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이해와 반성 속에서 비로소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이 없는 삶은 무생물적 존재와 같이 삶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곱 번째, 인격의 존속을 인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에는 큰 무덤을 만들거나, 무덤 속에 부장품을 묻거나, 혹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미라를 만드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여덟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서 내세가 존재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왕 죽는 몸인데 내세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현세의 죽음을 극복하는 것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적 암시가 이 유형에 깔려 있다고 보인다. 기독교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아홉 번째, 죽음을 윤회전생관(輪回全生觀)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다. 영혼은 그의 카르마(業) 때문에 영원히 멸하지 아니 하고 이 몸 저 몸을 윤회하면서 환생한다는 것이다.

열 번째, 죽음에 적극 도전하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도의 신선사상(神仙思想)은 오래 전부터 영생불사(永生不死)를 추구해 왔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유형은 열 번째이다.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삶의 지속을 희구한 나머지 인격의 전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하려는 양생법(養生法)을 발달시켜 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양생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사고는 기(氣)의 단련을 통하여 수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결국 기의 취산(聚散)에 의한 생과 사를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선사상에서는 흩어지지 않는 진기(眞氣)를 획득하면 장생불사(長生不死)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도달하였다. 불사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선사상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된다는 뜻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승리제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사상과 원리로 이 글의 연재 이유와 목적이다.

믿음의 체계로서의 죽음

위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죽음관의 유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괄목할 만한 발견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놓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죽음관은 나라와 종교, 관습에 따라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의 체계'가 아니라 막연한 '믿음의 체계'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준다.*